<연행가>의 교육적 讀法

: 대타적 자아인식의 형성과 문화 상대주의

김 풍 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차례>

1. 서론
2. <연행가> 서술자의 시선 변화와 그 의미
3. <연행가>의 對淸認識과 민족적 자아의 형성
4. <연행가>의 교육적 전망과 민족 교육

1. 서론

19세기 후반은 조선이 국제질서 속으로 편입되어 들어가면서 새로운 자아 인식을 요구받던 시대였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조선은 주변의 열강들과의 일정한 관계맺음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세워야하는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민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지만 동학의 기운이 민중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힘을 얻으면서 세력화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열강들의 침략 행위에 맞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지식인들의 고민이 심화되고 있었다.

공동체의식으로서의 민족의식은 대체로 집단의 어려움 속에서 강고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조선 후기는 민족의식이 형성되어 강화되고 있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세계를 향한 민중들의 위기의식이 동학이라는 형식으로 표출되었다든지, 열강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이

든 친화적이든 조선의 대타적 자아의식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이 시대를 마주하는 한 방편이었다면 이들 역시 민족의식의 형성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화는 일정한 등급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 이상의 강조가 필요하지 않다. 어떠한 문화든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연구의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화에 일정한 가치론적 등급을 상정하기도 한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라는 거대한 테두리로부터 지역과 지역, 집안과 집안에 이르는 작은 집단에 이르기까지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등급이기도 하다. 일견 자부(존)심이나 터무니없는 오만으로 표출되기도 하는 이러한 시각은 그 이면에 힘의 논리를 숨기고 있다. 근대 이후 민족주의 개념의 형성이 서구 제국주의의 발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것이거니와, 그 이전에도 민족적 동일성을 확보하려는 초보적인 수준의 시도들조차도 그러한 힘의 역학관계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는 중세 동아시아에 있어서 華夷論的 전통에 그대로 연결된다. 위계적 질서를 전제로 하는 華夷論은 문화의 우열관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확립된 논리이다. 주지하듯이 문화적으로 우수하고 높은 등급의 華夏文明은 저열하고 낮은 등급의 九夷文明과는 위계적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중세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에게 중국은 단순히 영토가 넓은 강대국으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은 삶의 전범이었으며 학술의 중심이었으며, 나아가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 반대로 중국에게 있어서 변방의 다른 오랑캐족들은 저열하고 낮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나 교화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시혜적인 문화 공급자로서의 중국은 언제든지 주변국들을 침략할 수 있는 문화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의 확장 정책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小中華意識은 역사적으로 층위를 달리 하면서 나타난다. 조선 전기에 이미 우리 자신을 소중화로 인식한 기록이 발견되거니와, 이 시기의 소

중화의식은 조선 후기의 그것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는 소중화의식을 단순히 중국을 사모하는 일종의 사대주의적 발상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조선 후기의 소중화의식은 중화문명의 嫡子인 명나라가 망하고 오랑캐인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된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중층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화문명의 적자인 명나라가 망한 현실적 상황에서 중화문명의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 조선 밖에는 없다는 것이 이 당시 소중화의식의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대타적 자아인식이라는 측면과 연결되어 민족의식의 맹아와 관련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나라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념적으로는 정벌의 대상으로 여겨서 북벌론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실적으로는 선진문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북학론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두 경향은 시대적으로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조선 후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청나라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 시각을 <燕行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지하듯 연행가는 중국 사신을 따라 다녀온 사람들의 기록이다. 여러 사람에 의해 <연행가>가 창작되었으며, 작품이 성격상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현실적으로 외국여행을 할 수 없었던 조선 사람들에게 연행가의 기록은 이국에 대한 흥미와 지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문학적 여행이었다. 그 중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연행가>는 『고등학교 문학(하)』에 수록된 洪淳學의 <연행가>이다. 조선 고종의 왕비를 책봉한 일로 고종 3년(1866) 書狀官의 자격으로 중국[1]을 다녀온 기록인 이 작품은 4월 9일

1) 여기서 '중국'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기술의 편의상 淸과 중국을 함께 사용한다. 그러나 홍순학의 <연행가>에서의 중국은 기본적으로 淸나라라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작품에서 그는 중국인들을 胡人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러한 태도 속에는 홍순학 당대에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들이 華族이 아니라 하나의 오랑캐라는 점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본고에서 <연행가>와 관련하여 '중국'을 말

서울을 출발하여 6월 6일 북경에 당도하여 40일 간 체류하였다가 8월 23일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130일 간의 여정에서 견문한 것을 기술한 작품이다.(250쪽)[2]

이 작품이 교육현장에서 어떤 방향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특히 민족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존재를 타자로 설정하는가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행가>의 교육적 讀法이라고 하는 문제로 나아갈 것이며, 문학교육에 있어서의 민족적 주체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2. <연행가> 서술자의 시선 변화와 그 의미

글을 서술하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하는 점은 전체적인 논지 파악을 위한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이다. 같은 사물을 묘사한다 해도 서술자의 시선에 따라 부각되는 사물의 특징은 다르기 마련이다. 사물 뿐 아니라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사건은 여러 사람의 다양한 체험이 재구성되어 흐름을 형성하기 때문에 사건에 참여한 사람 개인에 따라, 혹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사건의 전반적인 구도나 의미는 달라진다.

<연행가>는 130여 일 동안 겪은 중국 여행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기술하는 작품이다. 그 사건 속에는 수많은 인물과 사물, 에피소드들이 교직되어 있다. 작가 홍순학은 자신이 체험한 중국 여행을 나름대로의 시선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연행가>라는 작품 속에 펼쳐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연행가>를 접할 때 우선 홍순학이 작품 속에서 이동시키

할 때에는 청나라를 주로 지칭하는 것이다.

2) 본고에서 특별한 표기 없이 인용한 쪽수를 괄호 안에 적기한 것은 모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국어(하)』(교육부, 1997)에 의한 것이다.

는 시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시선의 이동에 따른 작품의 전개는 그것이 작품 내용을 형성/생성하는 전제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기행가사의 표현 주체는 공간적 이동에 따라 제시되는 풍경이나 체험, 사건 등을 인식하고 해석하여 끊임없이 표현할 내용을 생성해야만 하는 인물로 가정된다.[3] 공간은 계속 바뀌는 것이고, 그에 따라 내용의 생성 또한 계속된다. 연속적인 변환을 일관성 있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작자의 시선이다. 작자의 시선은 세계를 객관적으로 포착하는 카메라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각이 현현되도록 매개체를 찾는 여정 그 자체이다.[4]

본고는 <연행가>의 시선을 따라 가면서 홍순학이 보려고 했던 부분 혹은 말하려고 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으며, 보지 못했던 혹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를 탐구하려고 한다.[5] 25세의 젊은이가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역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새세계는, 크게는 당시 조선이 처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며, 작게는 젊은 선비의 생각이 어

3) 염은열, 『고전문학과 표현교육론』(역락, 2000), 8쪽.

4) 작가(혹은 화자)의 시선은 장르에 관계없이 중요한 요소이다. 시선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대상도 다르게 묘사되거나 이해될 수 있다. 교과서에서 평가 중점으로 내세운 항목 중에 '글에 나타난 작가의 관점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는가?'(268쪽)라는 것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일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기본적인 어려움을 안고 출발한다. 원래 연행가는 3,800여 구의 장편인데(346쪽),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에서 출발하여 의주에 이르는 여정만도 근 한 달이나 걸리지만 교과서에서는 수록되지 않았으며, 중국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요령성 봉성 지역까지의 여정 이후는 생략하였다. 말하자면 의주에서 중국으로 출발할 때부터 요령성 봉성에 들어가 보고 들은 것만을 교과서에 수록하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홍순학의 시선을 다양하게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 현장에서 이 작품이 읽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사만이라도 작품의 전편을 통독함으로써 작품의 흐름을 정확히 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이 다른 부분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이 부분이 홍순학 자신의 시선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변화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교과서에 수록된 <연행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과서 수록 외의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도록 한다.

떻게 세계를 한정하는지를 잘 보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이러한 체험이 작품으로 형상화되는 지점을 정확히 읽어냄으로써 국어교육에 있어서의 '표현'이라는 문제와 연결시킬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去國之懷와 離闈情의 혼효

<연행가> 내에는 홍순학의 시선이 두 층위에 걸쳐 혼재하고 있다. 개인적 층위와 사회적 층위이다. 홍순학 자신의 개인적인 목소리를 개인적 층위라고 한다면, 官人으로서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경우 사회적 층위로 명명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들 두 층위는 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 어떤 작품에도 혼재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개인의 차원에서 창작된 작품이라 해도 중세 사회에서의 문자 행위란 그 자체에 이미 정치성 혹은 사회성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범위를 확대한다면 현재 우리의 글도 두 층위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행가>의 경우에는 일정한 변별성을 가진다. 우선 홍순학은 관인의 신분으로 여행을 한다는 점이 다른 개인적인 층위에서의 작품 창작과는 그 출발점을 달리 한다. 서장관으로서의 입장은 작품 속의 표현 주체를 일정하게 한정함으로써 작품에 표현되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연행가>는 중국을 다녀온 관인으로서의 공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홍순학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입장과 정회를 표현하는 사적인 양식이라는 점에서 이 글은 단순히 관인으로서만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한다. 말하자면 이 글 속에는 단순한 개인의 서정을 드러내려는 목적보다는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려는 자세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느 작품이 가지는 두 층위의 혼재성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보인다.

홍순학은 우리 나라를 떠나 중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두 가지 정회를 언급한다. '거국지회'(去國之懷)와 '이위정'(離闈情)이다. 거국지회는 나라를 떠나는 감회이고 이위정은 부모님 슬하를 떠나는 정이다.

(가) 장계(狀啓)를 봉한 후에 / 떨뜨리고 일어나서
나라 떠나는 감회 그지없어 / 억제하기 어려운 중
여인의 꽃다운 눈물이 / 마음의 회포를 돕는도다. (251~252쪽)[6]

(나) 세상에 난 지 이십 오 년 / 부모님을 모시고 자라나서
평소에 부모님 곁을 떨어져 / 오래 떠나 본 일이 없다.
반 년이나 어찌할꼬 / 부모님 곁을 떠나는 정이 어려우며
경기도 지방 백 리 밖에 / 먼 길 다녀 본 적 없다.
허약하고 약한 기질에 / 만 리나 되는 여행길이 걱정일세.
한 줄기 압록강이 / 양국의 경계를 나누었으니
돌아보고 돌아보니 / 우리 나라 다시 보자. (253쪽)

홍순학 일행은 한 달여에 걸친 여행을 한 끝에 의주에 이른다. 그곳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도강 날짜를 정하고는 의주부윤에게 성대한 전별연으로 대접을 받는다. 전별연을 한 뒤에 狀啓를 봉하고 나서 자리를 일어선다. 거국지회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공적인 입장에서의 감회를 표현한다. 의주부윤의 전별연은 참석한 사람들의 착잡한 심회를 잘 드러낸다. 의주부윤은 압록강변에 있는 送客亭에서 다담상을 차리고 기생과 악사들을 동반한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는 듯하다. 그렇지만 연행사절을 이끌고 있는 '삼 사신'(三使臣 : 세 명의 사신)은 흥겨울 수도 있는 잔치에도 불구하고 '구슬픈'한 심회를 숨기지 않는다. '한 잔 한 잔 또 한 잔'을 하면서 '서로 앉아 권고하'(251쪽)는 모양이나, '상사별곡 한 곡조'를 듣는 모습 등은 전형적인 술자리이다. 처창한 분위기의 술자리가 파하고, 임금에게 보고할 서면에 해당하는 장계를 봉하자 드디어 중국으로 떠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엄밀히 말하자면 처창한 심회는 홍순학의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명의 사신이 느끼는 것이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홍순학이 바라본 감회가 처창함이라면, '억제하기 어려운' '나라 떠나는 감회(去國之懷)'(251쪽)는 홍순학 자신의 감회이다.

6) 본고에서의 작품 인용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번역문을 이용한다.

그러나 붉은 치마(紅裳)로 표현되는 기생들의 꽃다운 눈물이 자신의 심회를 돕는다는 표현 속에는 앞서 기술한 삼 사신의 그것과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압록강을 건너면서 홍순학이 드러내는 심회는 다분히 개인적 차원의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되는 해, 그는 한 번도 부모의 슬하를 오래 떠나본 적이 없었으며 지역적으로도 경기 지역 밖을 벗어나 본 일이 없다고 했다. 더욱이 허약한 기질 때문에 만 리나 되는 중국 여행이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러한 걱정은 미지의 땅에 대한 공포감에 연결된다. 개인의 허약한 기질에서 시작된 걱정은 부모의 슬하를 처음 떠나보는 것에 대한 근심, 경기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자신의 공간적 체험이 갑자기 극대화되는 것에 따른 두려움을 이어지면서 중국 여행 전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것을 홍순학은 '이위정(부모님 곁을 떠나는 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함축시키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심회로, 여기에서의 작자의 시선은 철저히 개인적 경험에 기대고 있다.

기실 실제 작품 속에서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진술을 얼마나 구분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문제는 이들이 혼효되어 새로운 차원의 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7] 그것은 작품이 독자에게 전하는 일종의 긴장감이다. 관인으로서의 엄정함 또는 단정함과 함께 개인의 착잡한 심정 사이에서 작자가 형성하고 있는 일종의 긴장감이다. 이 긴장을 통해 <연행가> 속의 인물이 단순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임무를 띄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작품이

7) 일반적으로 먼 여행을 떠나는 심회는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흥기되기 쉽다. 그것은 여행의 목적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신체가 여행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심회는 사회적 혹은 국가적인 문제로 전이되면서 여행의 목적에 관련한 진술로 나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순학의 경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흥기된 감흥이 새로운 차원의 심회로 전이되지 않고 뒤섞인 형태로 작품 곳곳에 표출된다는 점에서 명확함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되지만, 수록되지 않은 앞부분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지나치게 경직되어 읽는 재미를 떨어뜨리는 잘못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홍순학의 진술들은 자신이 처한 역사나 공간에 대한 명징한 인식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예컨대 유배가사의 경우 자신이 유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하고[8], 기행가사 중에서도 금강산을 여행한 금강산 기행가사류의 경우 금강산 유람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에 비해 홍순학의 <연행가>는 이런 점에서 비교적 모호한 편이다.[9] 물론 홍순학이 연행사절의 책임자였더라면, 그리고 그의 나이가 좀더 연만했더라면 문제는 달랐을 것이다. 그는 연행사절을 이끄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었으며, 줄곧 그의 시선이나 진술이 중국의 변화를 명확히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10] 뒤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그의 인식은 즉물적인 것에 가까워서 자신이 견문한 바에 대한 정확한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

8) 예를 들면 송주석이 지은 <북관곡>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송시열이 귀양가게 되자 그를 모시고 유배지까지 다녀온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데, 길 떠나는 목적이 유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글을 시작한다. <북관곡>이 사적인 차원의 것이라면, 具康의 <北塞曲>은 공적인 차원의 것이다. 암행어사의 임무를 띠고 北關 지역을 여행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에 의한 허구적 형상이 아니라 일정별 여정에 따른 체험과 견문의 사실적 기술'(이형대, 北塞曲의 표현방식과 작품세계,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228쪽)인 이 작품 역시 자신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

9) 또한 작자미상의 <연행별곡>(숙종 20년, 1694년 연행을 다녀온 사람의 작품임)에서도 출발할 때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작품은 이상보, 『17세기 가사전집』(교학연구사, 1987) 참조할 것.

10) 조동일은 다른 입장에서 이 작품을 간략하게 논의한 바 있다. 그는 홍순학이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하였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지식산업사, 1986), 96쪽.). <연행가> 전체를 통독하면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지만, 그것이 국제 정세를 파악하려는 관인으로서의 공적 시선인지 아니면 미지의 세계를 처음 답사해 보는 한 젊은이의 신기함과 놀라움의 한 결과인지는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쪽이라 해도 개인적 입장과 사회적 시선이 동시에 반영되겠지만, 그 경향이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논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공포의 경험과 연민의 정 : 신체의 변화에서 심리의 변화로

홍순학이 당시의 국제 정세를 얼마나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 파악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는 없다. 문제는 그에게 있어서 淸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부모의 슬하를 떠나 처음으로 맞이하는 중국은 홍순학에게 황량함과 공포로 다가온 듯하다. <연행가>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 구련성 다다라서 / 한 고개를 넘어서니
> 아까 보던 통군정이 / 그림자도 아니 보인고
> 조금 보이던 백마산이 / 봉우리도 아니 보인다.
> 백여 리의 사람 없는 곳에 / 인적이 고요하다.
> 위험한 만 첩의 산중 / 빽빽이 우거진 나무들이며
> 적막한 새 소리는 / 곳곳에 구슬프고
> 한가한 들의 꽃은 / 누구를 위해 피었느냐?
> 아깝도다, 이러한 꽃 / 두 나라의 버린 땅에
> 인가도 아니 살고 / 논밭도 없다고 하되
> 곳곳이 깊은 골에 / 닭소리 개소리 들리는 듯.
> 끝없이 넓고 험한 산의 형세 / 범과 표범의 해가 겹이 난다.
>
> (253~254쪽)

통군정이나 백마산은 압록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대하던 조선 땅이다. 고개 하나를 넘자마자 한 순간에 조선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홍순학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중국 땅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중국 땅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중국인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양국 모두에게 버려진 땅, 백여 리에 가까운 무인지경이 홍순학을 맞이한다. 울창한 숲과 만첩산중, 그 속에서 시시로 경험하는 '호포지환'(虎豹之患을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추정됨 : 254쪽 각주 참조) 등은 홍순학이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만난 첫인상이다. 그 와중에서도 한가한 들꽃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은 한가함 혹은 여유있음에 대한 작자의 표면적인 진술일 뿐으로 보인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여러 구절에서 그는 '사람 없는 곳(無人之境)' '위험한' '적막한' '구슬프고' '험한 산의 형세' '범과 표범의 해가 겁이 난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압록강을 넘어 중국 마을로 들어가지 전에 만나는 무인지경은 작자의 신체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일종의 문턱이다.[11] 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작자의 개인적, 사회적 신체는 새로운 배치에 의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생성된다. 그것은 '아까까지 귀하던 몸이 / 어이하여 졸지에 천해져서'(254쪽)라는 구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조선에서의 '귀하던 몸'은 졸지에 '천한 몸'으로 바뀐다. 이것은 심리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에서 출발한다. 서장관으로서 후대 받던 신체에서 호랑이나 범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나약한 한 인간의 신체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인연 조건은 그 배치를 완전히 달리 한다. 이러한 사정을 홍순학은, 일등 명창이 오락가락하던 수청기생은 어디 가고, 가득한 맛난 음식과 좋은 반찬과 딸린 반찬도 없으나마, 건량청에서 준 밥 한 그릇 이렇듯이 달게 먹는 모습이 너무도 우습다고 표현한다(254~255쪽).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위험과 미지의 땅에 대한 공포는 작자로 하여금 세계를 새롭게 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새롭게 조직된 사회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며, 이것은 작품 속에 세계에 대한 색다른 내용을

11) 작품을 보기에 따라서는 이 문턱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곳으로 비정할 수도 있다. 연행사신 일행이 봉황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삼엄한 검문을 받는 부분이 그것이다. '봉황성의 장이 나와 앉아 사람과 말을 점검하며, 차례로 들어오니 묻고 경계함이 엄숙하고 철저하다'(256쪽)고 하면서 검문의 철저함에 놀란다.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의례를 통해 비로소 홍순학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진행되던 새로운 경험의 집합처이며, 그런 점에서 이 지점을 하나의 문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즉 새로운 배치를 통해 전혀 다른 신체를 가지는 농도 짙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여 앞 부분을 문턱으로 기술하였다.

생성시킨다. 그의 심리적 변화는 바로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

> 세 사신 자는 데는 / 군사들 쓰는 장막을 높이 치고
> 삿자리를 둘러 막아 / 임시로 꾸민 방처럼 하였으되
> 역관이며 비장 방장 / 불쌍하여 못 보겠다.
> 사면에서 외풍이 들이부니 / 밤 지내기 어렵도다.
> 군막이라고 말은 하되 / 무명 한 겹으로 가렸으니
> 오히려 이번 길은 / 오뉴월 더운 때라
> 하룻밤 지내기가 / 과히 아니 어려우나
> 동지섣달 긴긴 밤에 / 바람과 눈이 들이칠 때
> 그 고생이 어떠하랴 / 참혹들 하다 하데. (255쪽)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현실이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뚜렷이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는 의주부윤의 환대에 즐거운 날을 보냈지만 건너자마자 작자의 시선은 현실에 대한 구분을 명징하게 형성한다. 세 명의 사신과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한 묘사에서, 홍순학의 시선은 어렵게 중국 여행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목도한다. 그 이전에는 이처럼 참혹한 상황이 연출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홍순학의 시선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되고 있다.

잠자리를 마련하는 모습에서 그 차이는 단적으로 드러난다. 正使臣의 잠자리는 높은 군막으로 되어 위엄 있으면서도 임시로 만든 방처럼 꾸며서 추위를 막는 역할을 하지만, 역관이나 비장, 방장 등 다른 사람들의 잠자리는 무명 한 겹으로 가린 상태이므로 바람이 그대로 들이쳐서 밤을 지내기 어렵다고 했다. 그나마 여름철이니 망정이지 겨울이었다면 그 형세는 훨씬 참혹하였을 것이라고 첨언한다. 필자 자신의 위치로 보아 아마도 이들 둘의 경계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조선에서는 의심없이 삼사신 쪽에 자신을 배치시키면서 나름대로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였던 홍순학으로서는 전혀 새로운 시선이 생긴 것이다. 군막과 무명이 경계선 위에 홍순학은 자신의 위치를 배치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의 신체적 변화는 심리적 변화로 이어진다. 즉 아랫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기는 것이다.

(3) 놀라움 : 사물에 대한 꼼꼼한 관찰

새로운 문물을 접할 때 처음 발양되는 감흥은 놀라움이나 신기함일 것이다.[12]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같은 감정의 발현이 그리 낯선 것은 아니다. 홍순학의 경우에도 중국의 문물을 처음 접하면서 그 놀라움은 작품 곳곳에 형상화되고 있다.

> 녹색 창과 붉은 문의 여염집은 / 오색이 영롱하고
> 화려한 집과 난간의 시가지는 / 만물이 번화하다.
> 집집마다 만주 사람들은 / 길에 나와 구경하니
> 옷차림이 괴이하여 / 처음 보기에 놀랍도다. (256~257쪽)

홍순학이 봉황성에 처음 들어가서 받은 첫인상이다. 조선의 문물과는 다르게 화려한 주거 시설과 괴상하기 이를 데 없는 의복, 胡人으로 지칭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들에 대한 자세한 관찰을 하도록 한다. 이 인용문 뒤에는 남녀 호인들의 모습, 의복, 주거 형태, 식생활, 가축 및 육아, 베짜기 등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이어지면서 한 편의 장대한 풍속화가 펼쳐진다. 작품을 읽기만 해도 그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재구될만큼 그의 묘사는 자세하면서도 꼼꼼하다. <연행가>의 가장 정채로운 부분이 바로 이곳이다.

홍순학의 시선은 처음 만나는 문물의 곳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 특징적인 부분을 드러낸다. 그 이면에는 놀라움의 정서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홍순학의 놀라움이 문학적 상상력의 새로운 전개로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 이외에도 북경에 도착하

12) 기행가사 특히 使行歌辭의 경우 이국 풍물에 대한 호기심은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재호, 燕行歌類에 나타난 중국(『한국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출판부, 1988)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여 궁성의 규모를 비롯하여 거대한 문명의 번화함에 놀라운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266쪽). 새로운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놀라움을 동반하면서 일종의 낭만주의적 상상력과 결합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대 이후 많은 기행문학 작품들이 여행을 하는 도중 다양한 상상력을 드러내는 근원도 낭만주의적 상상력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연행가>에서는 그 신기함이 오히려 더욱 세밀한 관찰과 묘사로 이어지는 힘이 된다. 이 두 층위는 세계 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전제로 한다.[13]

홍순학의 놀라움이 세계에 대한 정밀한 묘사로 이어진 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연행이라는 여행의 목적이다. 작품 속에서 비록 개인적인 감흥과 사회적 감흥이 혼재되어 표현되기는 했지만, 그가 연행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잊은 것은 아니다. 서장관이라고 하는 공적 신분(그것은 사회적 신체이기도 하다)은 세계에 대한 시선을 강하게 제한한다. 이들의 풍속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은 일종의 官

13) 이러한 차이가 장르적 특성 때문에 비롯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즉 가사 작품에서는 다채로운 낭만적 상상력을 담지한 경우를 보기 힘든데, 이것은 가사의 장르적 성격과 연관되는 측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보여주는 사유의 세계와 상상력의 광대함을 생각해 볼 때, 작가의 사유의 깊이와도 연관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르적인 측면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서사가사가 왜 19세기로 갈수록 서사성을 담지하는가를 주목해야 하는 것처럼, 기행가사에서의 놀라움의 정서가 왜 객관적 묘사의 세밀함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점을 주목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 제기는 장정수의 『서사가사 특성 연구』(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7)에서 계발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연행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가사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수많은 燕行錄類의 산문 기록과는 변별성을 가지게 된 점을 주목하여 가사만의 문학적 관습을 탐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後稿를 기약할 수밖에 없지만, 장르의 관습을 탐구하는 일이야말로 장르론의 핵심을 거론하는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 둔다 : "문학의 장르가 관습 또는 제도라는 관점을 수용하더라도 그 관습이나 제도의 틀에 대한 설명은 가능한 것이며, 그 설명이야말로 장르의 본질에 이르는 가장 근원적인 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김대행, 고전표현론을 위하여,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출판부, 1995, 243쪽)

人的 觀風에 연결되는 태도이다. 풍속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정치의 득실을 판단하는 것이 관풍이라면, 중국의 풍속을 관찰하는 태도 역시 관인으로서의 관풍 의식이 하나의 기계로서 작동하는 경우라 하겠다. 또 하나는 儒者로서 가지는 세계관이다. 格物致知에서 시작되는 이들의 공부는 세계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요구한다. 그러한 공부 방법이 窮理와 治國에 연결될 수 있는 도리를 찾는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연행가>에서 이런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 일차적으로 작동하여 세계를 정밀하게 살피는 태도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행가>와 같이 꼼꼼한 묘사를 하는 경향은 19세기 기행가사의 한 특징이기도 했다.[14] 이들은 자신의 여행경험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되도록 자세하게 경물을 묘사한다. 객관 세계를 구축하고 묘사하는 동안 자신의 생각을 단편적으로 틈입시키는 것도 일종의 글쓰기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방식이 사물의 나열 사이에 산발적으로 제시되는 것이라면 작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寸鐵殺人의 풍자거나 정곡을 찌르는 評唱이라야 한다. 홍순학이 <연행가>에서 보여주는 성과가 이러한 수준에 이르렀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3. <연행가>의 對淸認識과 민족적 자아의 형성

홍순학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경탄과 폄시'(268쪽)의 사이를 오가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격동기를 살아가는 작자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경탄과 폄시는 수많은 객관적인 묘사 사이에서 은근하게 혹은 단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를 주목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다.

---

14) 장정수, 『금강산 시행가사의 전개 양상 연구』(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0년 12월), 93쪽 참조.

여정에 따라 끊임없이 공간 이동을 해야만 하는 기행가사의 경우, 사물은 대체로 즉물적으로 인식된다. 심하게는, 작자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작품 속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표현 대상 소개 + 표현 대상에 대한 비평적 언급'의 형식으로 반복되면서 즉물적 인식의 극을 보이기도 한다.[15] 그렇지만 이같은 표현에도 상당한 편폭이 있다. 표현 대상을 소개하는 부분이 많은가 아니면 비평적 언급이 많은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본다면, 홍순학의 <연행가>의 경우 표현 대상을 극대화하고 이에 대한 비평적 언급은 간략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연행가>가 세계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세의 침략이 구체적으로 감지되자 이에 대응하는 국문문학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었다.[16] 특히 홍순학은 국제 정세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고자 했다는 평가[17]를 받았다. 다른 작품에 비해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의 관찰이 지향하는 지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서 제시된 바 '청나라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 있는 부분을 찾고, 거기에 어떤 의식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267쪽)는 항목에 정확히 부응한다.

그렇다면 홍순학의 시선은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교과서 수록 부분의 <연행가>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시선은 중국에 대한 폄시의 태도이다. 전술한 바처럼, 홍순학의 이러한 태도는 19세기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 對淸意識은 대타적 민족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서의 대타적 자아인식이란 어느 경우에나 보이는 것이지만, 이 당시 청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은 조선의 범주를 형성하는 중요한 상

15) 염은열, 앞의 책, 68-69쪽 참조.
16) 이에 대해서는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지식산업사, 1986) <9.2. 구시대 국문문학의 지속과 변모> 부분 참조.
17) 조동일, 위의 책, 96쪽.

대항이었고, 나아가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타자였던 것이다.

> 묵을 곳이라고 찾아가니 / 집 제도가 우습도다.
> 보 다섯 줄로 된 집 두 칸 반에 / 벽돌을 곱게 깔고
> 반 칸씩 캉이라는 걸 지어 / 좌우로 마주 보게 하니
> 캉의 모양이 어떻더냐 / 캉의 제도를 못 보았거든
> 우리 나라 부뚜막이 / 그와 거의 흡사하여
> 그 밑에 구들 놓아 / 불을 땔 수 있게 마련하고
> 그 위에 자리 펴고 / 밤이면 누워 자며
> 밤이면 누워 자며 / 낮이면 손님 접대
> 걸터앉기에 매우 좋고 / 기름칠을 한 완자창과
> 회를 바른 벽돌담은 / 미천한 오랑캐들도
> 겉치레가 지나치구나. (261~262쪽)

홍순학은 자신이 묵을 주택의 모습을 위와 같이 묘사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물론 우리 나라의 부뚜막을 예로 들어 비교하면서까지 문물을 소개한다. 그러나 그 묘사의 이면에는 이것이 '오랑캐'들의 문화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시작부터가 '우습다'고 하여 홍순학의 시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들의 풍속이나 문물이 화려하기는 하지만 '겉치레가 지나치'다는 것은 그들의 사치스러움에 대한 비판이면서도 전혀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과장된 몸짓이 엿보인다.

청나라에 대해 오랑캐라고 하면서 폄시하는 태도는 작품 곳곳에 보인다. 교과서 수록분만 하더라고 '오랑캐'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한다. 또한 새로운 문물이나 풍속, 사람의 모습 등을 형용할 때에는 어김없이 폄시하는 태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 폄시의 태도는 이미 망해버린지 오래인 명나라(한족)에 대한 일방적인 선망에 연결되어 있다. 위의 인용문에 앞서 홍순학은 여인들의 전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즉 청나라 여인들은 발이 커서 남자의 발 같은데 한족 여자들은 발이 작아

위태롭게 걷지만 비웃을 것이 못된다고 하면서, '명나라가 끼친 제도 / 저 계집의 발 한 가지 / 지금까지 볼 것 있다"고 말한다. 전족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원의 시선을 가지기보다는 그것이 명나라의 유풍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청나라의 상황을 비판하는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교과서에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후일 그가 북경에 도착하여 명나라 후예들을 방문하여 문답을 나눈 사실을 자랑스럽게 기술하는 것과 연결되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홍순학의 시선을 형성한다.[18]

그렇다고 해서 홍순학의 시선이 일방적이고 편견에 가득찬 것은 아니다. 그들의 편리한 문물에 대한 긍적적인 기술도 보인다.

> 씨아질과 물레질과 / 실꾸리 감는 계집이라.
> 도투마리 날을 맬 때 / 풀칠 않고 잘들 하며
> 베틀이라 하는 것은 / 가뿐하고 재치 있다. (265쪽)

다양한 가축을 기르기도 하면서 또한 그들을 잘 이용하는 모습이라든지, 아이를 행담에 담아 기르는 모습, 편리한 농사일의 모습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묘사는 비교적 흥미롭게 묘사한다. 아이 기르는 모습을 그리면서 '어린아이 기르는 법은 풍속이 괴상하다'고 하여 다른 부분의 시선과 같은 전제라는 것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실용적인 생활상에 대해서는 가감없는 묘사로 일관한다.

이것은 18세기 이후 북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청나라 문물에 대한 일정한 수용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명분론적 혹은 관념적 인식은, 그들의 선진적인 문물을 목도하는 순간 흔들린다.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처럼 홍순학도 관념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시선이 때로는 청나라에 대한 터무니없는 편견으로, 때로는 소박하긴 하지만 문화적 상대주

18) 이 부분은 이미 조윤제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 : "당시 淸朝에 屈服하고 있는 漢族과의 親善같은 問題는 特記할 事實로서 이 燕行歌에 그 點이 鮮明히 나타나 있는 것은 크게 價値있는 것이다."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3, 342쪽)

의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홍순학은 작품에서 그들을 오랑캐라고 쓰지만 어느 사이엔가 그들의 삶을 경탄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경탄과 폄시 사이에서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浮遊하고 있다.

홍순학의 부유하는 시선은 중국이라는 타자를 통해 조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오랑캐를 타자로 상정할 때 자신은 자연히 문명인이 된다. 야만과 문명이라는 구도를 확고하게 가지면서 상대방을 폄시할 때 나타나는 관념 중의 하나가 바로 소중화의식이다.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화이론적 생각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홍순학의 작품에서는 중세적 세계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 포착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연행가>는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이 어떤 점을 수용하고 어떤 점을 지켜나가야 할 지, 경탄과 폄시 사이에서 심각하게 갈등한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비로소 민족의식이 맹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4. <연행가>의 교육적 전망과 민족 교육

개인적인 심회와 관리로서의 공적 감회가 혼효되어 시작된 <연행가>는 압록강을 넘어 새로운 땅으로 들어서자 신체와 의식 모두에서 급격한 전환이 보인다. 홍순학은 조선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다른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정서적으로는 두려움에서 경탄으로 바뀐다. 경탄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찬탄은 아니다. 그 밑바닥에는 청나라에 대한 폄시의 태도가 깔려있다. 소중화의식의 산물인 폄시의 시선은 대타적 민족의식의 왜곡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관념 속에서 명나라라고 하는 이상형을 상정한 후,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오랑캐(야만)라고 규정하는 태도가 소중화의식의 주된 구도이다. 말하자면 내부에서 공동체의식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기준을 찾는 것은, 그것이 비록 대타적 민족의식의 형성이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해도 왜곡된 형태의 것임에 틀림없다.

결국 홍순학은 <연행가>에서 관념과 현실 사이의 서성거림을 보여준다. 이상적인 중화의 모습과 현실적인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은 홍순학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의 두려움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경탄과 폄시 사이를 오가면서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드러낸다. 바로 그 지점이 홍순학의 역사 현실 인식의 출발점이다. 홍순학이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일종의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창작 태도에서 청의 문물에 대한 편견을 발견하는 것은 그 한계가 어디인가를 잘 보여주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연행가>를 통해 문화 상대주의가 빠지기 쉬운 함정,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적 상대성의 이름으로 또 다른 편견을 적용하는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교육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19]

근대 이후 우리의 민족 개념은 항상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변국을 하나의 타자로 상정하면서 형성되어 왔다. 특히 18세기 이후 조선은 중국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다. 일제 강점기를 맞으면서 일본이 새로운 타자로서 강력하게 등장한다. 지금 우리의 민족 의식은 서구 열강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와 민족들을 전방위적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우리 의식의 내면에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의 국어교육이 민족 교육의 문제와 관련을 맺을 때 언제나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어(하)』의 편찬 과정에서 <연행가>를 수록한 목적이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의견을 계발하라는 점에 있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라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문학교육의 다양한 이념적 속성 가운데 민족적 주체라는 이념항을 설정할 수 있다

---

19) 이러한 활동은 실제 교육 활동 속에서 자신의 여행 경험을 표현하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다. 여행 과정에서 체험했던 다양한 생활 형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문화 상대주의적 시선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반성적으로 사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쓴 기행문(기행시, 기행가사 등)을 읽고 난 후 교사가 조언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윤독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글에 나타난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평을 짧게 쓰도록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면, 이를 위한 민족 의식이 문화의 수용 과정의 앞부분에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중에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자칫 경쟁력 문제와 관련되면서 현실적 생산의 측면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우리 문화'라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문화'로 명시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 역시 '민족공동체의 질적 발전'으로 수정함으로써 민족적 특성과 방향성을 표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20]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타적 민족 의식의 형성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가 타자를 오랑캐로 지목하는 순간 관념 속에서의 우리는 문명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편견에 사로 잡힌 문화 수용이 될 것이다. 그것은 다시 문화적 소통 행위를 근본적으로 두절시킴으로써 타자 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문화적 황무지를 만드는 것에 기여하게 된다. 여행의 목적 중의 하나가 문화적 소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는 문화의 소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행가>의 교육적 독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타자의 설정을 통해서만이 정당한 자기 규정 혹은 민족적 주체의 형성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

20) 김상욱, 문학교육 이념으로서의 주체 형성과 민족적 주체(『문학교육학』 제6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년 겨울호), 107쪽.

<초록>

연행가의 교육적 독법

김 풍 기

이 논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홍순학의 <연행가>를 어떤 시각에서 가르쳐야 하는가를 탐구한 글이다. 교과서에서는 홍순학이 중국에 처음 들어가서 그들의 문물을 흥미롭게 관찰하는 부분만을 뽑아서 수록하였다.

홍순학은 <연행가>에서 관념과 현실 사이의 서성거림을 보여준다. 이상적인 중화의 모습과 현실적인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은 홍순학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의 두려움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경탄과 폄시 사이를 오가면서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드러낸다. 바로 그 지점이 홍순학의 역사 현실 인식의 출발점이다. 홍순학이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일종의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창작 태도에서 청의 문물에 대한 편견을 발견하는 것은 그 한계가 어디인가를 잘 보여주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연행가>를 통해 문화 상대주의가 빠지기 쉬운 함정,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적 상대성의 이름으로 또 다른 편견을 적용하는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교육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하)』의 편찬 과정에서 <연행가>를 수록한 목적이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의견을 계발하라는 점에 있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라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문학교육의 다양한 이념적 속성 가운데 민족적 주체라는 이념항을 설정할 수 있다면, 이를 위한 민족의식이 문화의 수용 과정의 앞부분에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타적 민족 의식의 형성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가 타자를 오랑캐로 지목하는 순간 관념 속에서의 우리는 문명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편견에 사로 잡힌 문화 수용이 될 것이다. <연행가>의 교육적 독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타자의 설정을 통해서만이 정당한 자기 규정 혹은 민족적 주체의 형성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핵심어】 홍순학, 연행가, 고전문학 교육, 가사(歌辭), 문화상대주의, 대타적 민족의식,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Reading Yeon-Hang-Ga(燕行歌: A Song, My Trip to Beijing)

Kim, Pung-gi

This thesis will offer key points for those interested in teaching Hong Sun-Hak's travel account Yeon-Hang-Ga(燕行歌: A Song, My Trip to Beijing), one of the selections from the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 The textbook includes only the first part of Hong's journey where he first visits Ch'ing Empire and observes the "civilized" culture with keen interest.

Yet, Hong displays a sense of restlessness between the reality and ideal. In reading the text, one not only comes across Hong's fascination with Ch'ing's civilized culture in reality, but also his disdain towards the Ch'ing dynasty, an empire without the rightful lineage to China, in ideal. This apparent conflict could be summarized as Hong's discernment toward history and reality. Hong deliberately tries to maintain the cultural relativism that all cultures have its own quality; yet, the bias that Manchurians are inferior inevitably intervenes. These incompatible feelings in Yeon-Hang-Ga give guidelines for high school educators to avoid the errors that one easily commits in cultural relativism, namely, being biased without recognition in the name of cultural relativism.

Including Yeon-Hang-Ga in the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 would have been objected to develop various perspectives and

opinions toward the foreign culture and selectively accept the different cultures. Of all the ideologies that accompany the literary education, setting the national Subject or retaining national consciousness should be the precondition to the educational process of cultural exchange.

At this point, we should be reminded that self-definition derives from the definition of *the other*. When one designates *the other* as barbarian, one can be the civilized in idea; however, it would be a biased way of accepting the foreign culture. Thus, what is important in reading Yeon-Hang-Ga is that defining *the other* rightfully would affirm the rightful self-definition or establishment of national Subject.

【Key words】 Hong Sun-Hak, Yeon-Hang-Ga, literary education, Cultural Relativism, The Rightful Self-Definition, Establishment of National Subject.